

역사 속에서 미래의 길을 찾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으로 지역 정책 연구의 허브입니다. 올해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역할은 시·도민에게 행복, 희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역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대구경북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경북학센터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창조의 멘토 33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면 시행된 주5일 수업제는 창의성과 인성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서 일생 중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성장·발달해 갑니다. 이처럼 우



리의 소중한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고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육 주체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공동체로서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구성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단순한 학업성취에서 나아가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교사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심도 있는 자기성찰과 인성도야가 필요합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연합회 같은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멘토 33인》은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이 책은 선도적 지역 인물들의 행적을 되짚어 오늘의 귀감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방향성을 찾도록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과 학교, 청소년 개개인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되는데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계신 대구광역시장님, 경상북도지사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님, 경상북도의회 의장님과 불철주야 지역 교육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구광역시 교육감님, 경상북도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고의 노력으로 지역 대표인물 한분 한분을 엮어내신 집필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비판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성근